

<2012년 3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육’은 자체로는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무식하고, 무가치하다.
2. 자기 영이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영이 육을 사용해야 육이 가치 있고 온전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행하며 천주적 가치로 산다.
3. 육의 삶은 영에게 무익하다. ‘무익하다’라는 말은 해 봤자 목적을 이루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없다 함이다.
4. 육은 영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영이 유익하다. 고로 육은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
5. 항상 영은 하늘로 가고, 육은 땅으로 세상으로 간다. 고로 육 혼자 살면 항상 땅으로, 세상으로 가는 삶을 산다. 평생 동일하다.
6.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을 자체적으로 살게 그냥 놔두면 온종일 육의 행실을 한다. 영이 함께해야 된다. 육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못 한다.” 하셨다.
7. 육은 1초라도 육의 삶을 살아야 존재하기에 육의 삶을 산다. 그러나 영이 육과 함께하면 영의 삶도 살고, 육의 삶도 산다.
8. 주님은 영이다. 인간은 육이다. 인간은 혼자 놓아두면 평생 육으로 산다. 인간 자체에 육과 마음과 영이 있으나, 인간 자체적으로는 ‘육’이다. ‘영’이신 주님이 손대지 않으면 인간은 육으로 산다.

9. 한 여자가 있는데 혼자 놔두면 24시간 여자로만 산다. 남자가 가서 함께하면 그때부터는 다르다. 둘이 함께 사니 여자의 삶도 살면서 남자의 삶도 살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도 그대로 놔두면 평생 육적인 삶만 산다. 전 세계 70억 명이 모여 살아도 인간은 인간이다. 육이다. 주님을 만나야 육의 삶에서 벗어나 영의 삶을 살게 된다.

10. 육은 세상이요, 영은 하늘이다.

11. 하나님은 인간을 육과 영으로 창조하시고, 육은 육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영은 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

12. 창조자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육도 무익한 삶으로 끝나고, 영도 무익한 삶으로 끝나게 된다.

13.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은 일생 동안 인생 사막을 헤매다 끝난다.

14. 적에게 쫓기는 자는 자기가 갈 목적지까지 날면서 가게 된다.

15. 어차피 가야 할 곳이니, 적에게 쫓기면서라도 좋다고 하며 가야 된다.

16. 적에게 쫓긴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안 쫓기면 태평하여 그 자리만 돌다가 갈 길 못 가고 광야에서 늙고 끝난다.

17. 이왕 갈 길이라면 자기가 자기를 쫓으면서 독촉해서 가야 된다. 해지면 못 간다.

18. 서산의 해가 남았을 때가 마지막 기회다. 그때 죽지 않을 만큼 갈 길을 재촉하면서 가라. (그때가 이때다.)

19. 하늘길은 가는 대로 이익이다.

20. 세상길은 가는 대로 무익이다.

21. 세상에 매인 줄은 1000개라도 다 끊고 가야 된다. 쇠밧줄과 금밧줄로 묶였어도 다 끊고 가야 된다. 세상 사랑 밧줄이 100개나 묶였어도 다 끊고 가야 된다.

22. 천국에 가면, 세상이 사랑해 주는 것은 그림자 사랑이고 동물이 사랑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여기까지 붓을 강하게 눌러 썼다.)